

포켓 사이즈의 문고본으로, 일대기를 포함한 '작가론', 엄선된 '작품'과 '사진설명', 그리고 '작가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및 사진설명(위)과 작가론(아래)의 한 페이지. '이갑철' 중에서.

각 권 136×156mm, 반양장, 128-144면, 12,000-14,000원



도로시아 랭(1895-1965)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도시인과 이주 농업 노동자 가족들의 비극을 대중에게 알린 다크멘터리 사진가이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어떤 위엄과 용기를 지닌 당당한 존재로 그림으로써 진정한 휴머니즘을 완성해내고 있다.



유진 리처즈(1942-)는 약물 중독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등 시대의 어두운 대상들과 단호히 직면한 포토저널리스트이다. 그의 사진은 현대적 삶의 진실에 당당히 다가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사회적 정의에 대한 참여를 뜨겁게 요구하고 있다.



유진 스미스(1918-1978)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처한 상황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고 선언한, 포토에세이의 대가이다. 전쟁과 고통,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그의 사진들은, 전설보다 더 전설 같은 인간 스미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재연해 주고 있다.



도마쓰 쇼메이(1930-)는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가이다. "사진은 하이쿠(俳句)이다. 사진은 무한한 선택의 예술이다"라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간결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다크멘터리 사진을 창조했다.



외젠 앗제(1857-1927)는 파리의 거리와 영세 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만여 점의 사진을 남겼다. 그는 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뛰어난 감수성으로 기록했으며, 비로소 형식주의에서 사진을 해방시켜 '현대사진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다.



메리 엘렌 마크(1940-)는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극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담아낸 다크멘터리 사진가이다. 인내심과 존중심으로 대상에 접근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마크의 사진은, 우리와 동떨어진 듯 느껴지는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공감하며 바라보게 한다.



라즐로 모홀리-나기(1895-1946)는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혁신적인 작가이자 이론가로, 여러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새로운 시각'을 추구했다. 그가 내세운 '빛의 형태로서의 사진'이란 개념은, 재현의 역할에서 사진을 해방시키고,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발견해낸 새로운 이미지들을 긍정하는 시작이었다.



에드 반 데르 엘스켄(1925-1990)은 파리 보헤미안들의 청춘을 담은 사진소설과 세계일주여행 사진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다크멘터리 사진가이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애정이 담긴 생생한 장면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아름답고 유머로 가득한 듯하지만 비극적인 진실 또한 담고 있다.



조엘-피터 윌트킨(1939-)은 죽음과 육체, 성 등 인간의 기본 조건을 새로운 방법으로 탐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진가이다. 그는 기괴하게 변형시킨 육체를 통해 죽음을 일상의 영역으로 불러오고,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환기하는 충격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의 연금술을 구사한다.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1902-2002)는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나 지역의 축제, 종교 행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전통적 모습들을 담아 온 '멕시코 사진의 아버지'이다. 미니멀리즘적인 구도와 집중적인 디테일을 보여주는 그의 이미지들은, 독특한 상상력과 재치, 초현실주의적 유머 등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블라트(1930-)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으로 지배받는 남아프리카인의 삶을 매혹적으로 그려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다크멘터리 사진가이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강렬한 햇빛을 이용한 강한 대조법과, 대상의 '세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풍부한 톤으로 자신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을 통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조엘 마이어로위츠(1938-)는 뉴욕 출신의 사진가로, 생동감 넘치는 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채감각으로 건축과 빛, 공간과 같은 주제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그는 과거 컬러 사진이 가진 상업적 성향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정적이고 섬세한 색채로 이 분야의 예술적 가치를 입증해낸 선구적인 사진가로 유명하다.



보리스 미하일로프(1938-)는 현존하는 옛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저명한 사진가로, 소비에트의 사회현실을 기록하고 그 모순을 폭로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진전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힘을 다채롭게 탐구해 왔다. 그의 작업은 정치적 발언이자 애증이 교차하는 자화상으로, 실패한 사회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요제프 수택(1896-1976)은 외젠 앗제와 파리의 관계처럼, 프라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체코의 위대한 사진가이다. 그는 유리창 선반 위의 꽃병, 바닷가의 조개 그리고 프라하의 공원이자 전차의 종착역 등 일상 사물과 친숙한 풍경을 '이용 가능한 빛'의 구상을 통해 담아냄으로써, 예술과 사진에 대한 정신적 접근을 추구했다.



장차이(1916-1994)는 서양 문물이 유입되던 시기의 상하이 풍경, 정치사회적 격변기의 타이완 사람들과 원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관찰과 탐구의 열정으로 기록한 타이완의 선구적인 사진가이다. 평범한 듯 보이는 그의 이미지에는 섬세한 시각적 긴장감을 구현해내려는 끊임없는 예술적 시도와 노력이, 그리고 대지의 향기와 인간의 온기가 깊이 배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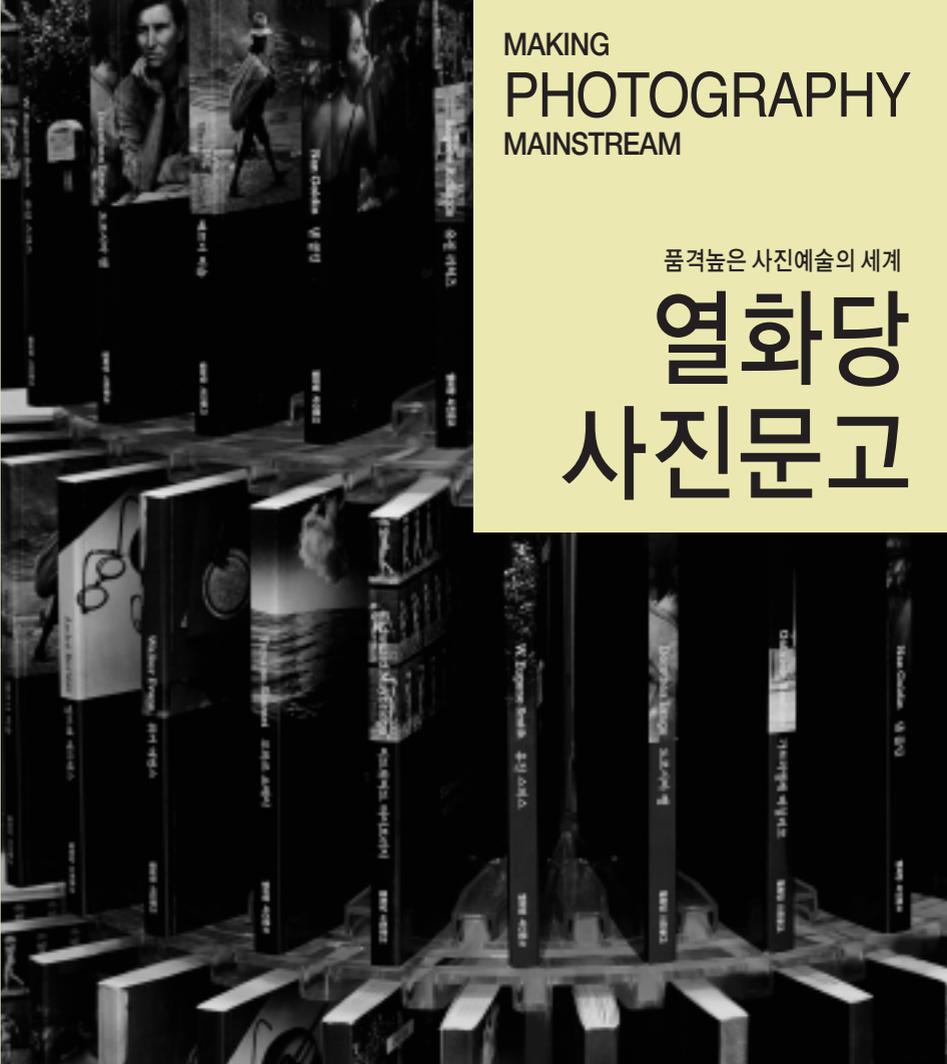
장자오탕(1943-)은 탄압과 구속이 횡행하던 1960년대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타이완의 현실을 이야기해 온 사진가로, 서구 모더니즘을 타이완 사회에 교묘하게 적용해 억압된 현실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언어로 이용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에서 비롯된 그의 이미지들은 깊은 은유와 전환, 연상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카이(1912-1950)는 신해혁명 후 중국이 전통사회에서 신문명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에 태어나, 중국공산당 바루쥘(八路軍)의 사진선전원으로 일하며 중일전쟁의 현장을 기록한 다크멘터리 사진가이다.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획득하고 있는 그의 사진은, 혁명시대 예술의 한 표본을 보여 준다.



광혜변(1909-1984)은 1930년대 중국 서부의 소수민족들을 기록한 사진가로, 그의 '인류학적' 사진에는 다른 서구 사진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공감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 사진 속에 아름답게 남겨진 그들의 활력있고 순수한 생활상은, 땅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MAKING PHOTOGRAPHY MAINSTREAM

품격높은 사진예술의 세계 열화당 사진문고

사진예술의 작은 박물관

일반인들은 물론 사진 전공자들의 필독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열화당 사진문고’는 국내외 사진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길을 마련해 왔다. 한국,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일본, 중국, 타이완, 구소련,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삼세계 사진가들까지 아우르고, 세계 사진계를 이끌어 온 명성 높은 사진가를 비롯해 실험적인 젊은 사진가들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의 작품은 전시회나 사진집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시리즈에서는 한 사진가의 모든 작업 가운데 대표작을 엄선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민식(1928-)은 ‘인간’이라는 주제에 몰두해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모습을 담아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다. 그는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비극과 부조리뿐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일종의 희극적 여유로움까지 가감없이 포착해내고 있다.



정범태(1928-)는 한국전쟁 이후 오십년대의 피폐했던 상황과 육십년대의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실존적 상황에 놓인 하층민의 삶을 기록해 온 리얼리즘 사진가다. 그의 사진은 회화적 구도와 스트레이트에 의한 정공법으로 당대의 리얼리티와 해학, 진한 휴머니즘을 담아내고 있다.



강운구(1941-)는 우리의 시각언어로 작가주의적 영상을 개척하여, 가장 한국적인 질감의 사진을 남기는 사진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십년대 이후 개발독재의 분위기 속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국민들을 담아낸 그의 사진들은, 철저한 기록성에 바탕을 둔 ‘서정적 리얼리즘’을 보여 준다.



구본창(1953-)은 팔십년대 이래 스크래치, 몽타주, 조각보, 포토그램 등 다양한 기법을 사진에 도입해 한국 현대 사진계를 개척해 온 실험적 사진가다. 특히, 내면적 의식세계를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 미니멀리즘의 형식으로 표현한 그의 연작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 준다.



황규태(1938-)는 멀티 프린팅, 더블 익스포저, 콜라주, 몽타주 등 반사진적 방법과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용해, 우주와 생명공학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의식을 표현해 온 포스트모더니즘 사진가다. 강렬한 색채로 만들어진 그의 사진은 생명의 이미지를 미술과 같이 펼쳐 보인다.



민병헌(1955-)은 희미한 광원에 의지하여 사진이 아니고는 결코 표현해낼 수 없는 대상들을 스트레이트 기법으로 찍어 온 사진가다.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날카로운 ‘눈의 직관’으로 포착하여 보일 듯 말 듯한 존재로 붙잡아 둔 그의 사진은, 동양의 선가적(禪家的) 존재론을 형상화한다.



주명덕(1940-)은 근대화의 뒤안길에서 잊혀져 간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사진의 ‘사회적’ 기록 가능성을 보여 준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가다. 그는 샤머니즘, 문화유산, 산하로 앵글을 옮겨 가면서 독특한 이미지, 변화무쌍한 풍경을 담아, 풍경과 정서, 조형성과 내러티브를 하나로 융화시켰다.



이정진(1961-)은 풍경과 사물에 관한 깊은 사유를 통해 대상이 원래부터 지닌 추상성과 초현실성을 독특하게 표현해 온 사진가다. 그의 사진은, 현실의 재현, 시각적 아름다움의 재구성보다, 이미지들이 작가 내면의 은유와 결합하면서 시공간이 지워진 채 존재의 내면적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육명식(1932-)은 인간의 본질, 근원에 대한 물음을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표현해 온 사진가다. 예술가, 백민(白民), 장승, 검은소말뚝 등 일련의 ‘얼굴들’을 통해 인간의 정신, 존재의 본질에 관한 깊은 탐구를 보여 준 그의 사진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김기찬(1938-2005)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서울 도심의 ‘골목안 풍경’을 평생의 테마로 삼아 쉬없이 기록한 사진가다. 재개발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옛날 소박한 서울의 모퉁이들은, 이제 그의 사진으로 남아 우리의 향수와 상처를 동시에 불러낸다.



이갑철(1959-)은 우리 땅의 사람과 자연을 스트레이트기법으로, 그러나 어딘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담아낸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 와 ‘기록하지 않으면서 말하려 한 이갑철의 문법은, 다큐멘터리 장르의 확장이자 그의 사진을 현대적이고 당대적이게 하는 지점이다.



전몽각(1931-2006)은 20세기 중반 한국 중산층 가정사(家庭史)의 기록을 세밀하고도 아름답게 완성해낸 사진가다. 경제개발에 온 나라가 전력했던 시절, 그는 집과 일터에서 마치 일기를 쓰는 매일 서터를 놀렸고, 세월과 함께 축적된 이 사진들은 우리 현대사의 견고하고 충실한 기록이 되었다.



임응식(1912-2001)은 1950년대 ‘생활주의 사진’을 주창하고 나서며 사진의 이론적 체계와 예술로서의 지위를 확립시킨 한국사진의 선구자다. 또한 사진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이자 비평가로서 행한 수많은 업적을 돌아볼 때, 한국사진사에서 차지하는 임응식의 위치는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



김병만(1949-)은 고향땅 남도 특유의 토속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석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지켜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다. 정치적 격변기의 숨가쁜 현장에 있던 희극적 순간을 절묘히 포착한 그의 사진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아내는 판소리 한판을 보는 듯 우리의 감정을 해방시킨다.



김수남(1949-2006)은 굿, 탈춤, 민속놀이, 전통의례와 제의 등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사라져 가는 무속과 기층문화 기록에 평생 몰두한 사진가다. 특히 그는 사진의 대상인 무속인들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단순한 기록사진 이상의 예술적 울림을 완성해냈다.



김중만(1954-)은 경계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인물, 풍경, 동물, 정물 등 다양한 대상을 자신만의 시각과 테크닉으로 포착한다. 머물러 있지 않는 그의 끝없는 실험은, 자신과 시대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며, 동시에 이것이 김중만의 작업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가브리엘레 바질리코(1944-)는 사진과 동시대 미술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 이탈리아의 주도적인 예술사진가이다. 그의 사진은 모든 것이 정지된 순간에 장소와 시간의 애매함을 유지함으로써, 건축물에 반영된 인간의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읽어내고 있다.



베르너 비숍(1916-1954)은 독창적인 예술적 감수성과, 참여하는 증언자로서의 유럽적 저널리즘의 전통을 결합한, 전후(戰後)의 포토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사진이 의식을 고양시켜 실제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간 예술가였다.



워커 에번스(1903-1975)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지방 소읍에 끼친 영향을 기록한, 가장 뛰어난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알려져 있다. 감정을 철저히 자제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의 인물들은 저마다 묘한 아름다움을 발하며 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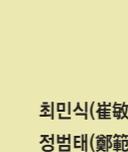
낸 골드인(1953-)은 성, 에로티시즘, 약물 중독, 그리고 그 관계성들에 대한 숨김없는 탐구를 통해 사회적 터부를 부순 사진가로 평가된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그의 사진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앙드레 케르테스(1894-1985)는 후대 사진가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그가 이미 해 놓은 것들이다”라고 할 만큼 현대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개척자였다. 그의 사진이 지닌 강점은, 이처럼 당대의 아방가르드 운동을 주도하면서도, 내밀한 순수성을 언제나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드워드드 머이브리지(1830-1904)는 초기 사진의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동물과 인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870-80년대에 탄생한 그의 연속 이미지들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영화의 탄생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구적 작업이었다.



도마쓰 쇼메이(東松照明, Tomatsu Shomei) 이안 제프리 / 최봉림
 유진 리처즈(Eugene Richards) 찰스 보든 / 이영준
 유진 스미스(W. Eugene Smith) 샘 스티븐슨 / 김우룡
 외젠 아제(Eugène Atget) 게리 벅처 / 정재곤
 메리 엘렌 마크(Mary Ellen Mark) 찰스 헤이건 / 김우룡
 라즐로 모홀리-나기(László Moholy-Nagy) 자닌 피들러 / 박신외
 에드 반 데르 엘스켄(Ed van der Elsken) 흐립시메 피셔 / 이영준
 조엘-피터 윌트킨(Joel-Peter Witkin) 유지니아 패리 / 김우룡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Manuel Alvarez Bravo) 아만다 홉킨슨 / 김우룡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레슬리 로슨 / 김우룡
 조엘 마이에로위츠(Joel Meyerowitz) 콜린 웨스터백 / 신가현
 보리스 미하일로프(Boris Mikhailov) 길다 윌리엄스 / 신가현
 요제프 수덱(Josef Sudek) 이안 제프리 / 문광훈
 장차이(張才, Chang Ts'ai) 쟈웬빈 / 한정선
 장자오탕(張照堂, Chang Chao-Tang) 귀리신 / 한정선
 샤페이(沙飛, Sha Fei) 왕뤄 / 한정선
 창쉐벤(莊學本, Zhuang Xueben) 구정 / 한정선
 * 계속 출간됩니다.